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4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자) 사순 제3주일

2024년 3월 3일 (제2071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토/일(8am~4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탈출기 20,1-17 <또는>탈출기 20,1-3.7-8.12-17

화답송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1,22-25

복음환호송 요한 3,16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가]	8시	입당 67	봉헌 510	성체 (기)486	파견 125		
	11시	입당 118	봉헌 220	성체 163 152	파견 280		
사순3주일	3월 3일(일)		3월 5일(화)	3월 6일(수)	3월 7일(목)	3월 8일(금)	3월 9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김미숙 말가리다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페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페트리샤	안나 요아킴회
독서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최윤기 유스티노 황선희 세실리아	이명국 바오로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안나 요아킴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3월 성 요셉 성월

- 성 요셉 성월 기도문(매일미사 책 9쪽)을 바칩니다.

■ 부활 판공성사

- 사순시기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판공성사

■ 사순시기 복음환호송/신앙의 신비

*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목요일 저녁미사, 주일 8시, 11시 미사 30분 전

* 교중 미사 전 : 3/3(일) - 성모회, 3/10 - 하상회

* 목요일미사전 : 3/7(목) - 대건회, 3/14 - 콘트라코스타

■ 사순시기 외부신부님 판공성사

- 예수회 박수영 테오도르 신부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0시부터.

■ 사순시기 특별강론

-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부제 수사님

- 일시 : 3월 10일(일) 주일미사

■ Jfam(한국생활성가팀)과 함께 찬양과 본당사순시기 피정

- Jfam과 함께 찬양 : 3월 15일(금) 오후 7시

*한국생활성가팀 Jfam과 함께 배우고 부르는 찬양

- 사순시기 피정 : 3월 16일(토) 오전 11시-오후 4:30

* 1부 : 11:00 - 12:30 묵상글과 음악피정

* 점심 : 12:30 - 1:30 본당에서 간단 점심식사

* 2부 : 1:30 - 3:00 Jfam과 함께 피정

* 3부 : 3:00 - 4:30 파견미사

* 저녁 : 4:30 - 본당에서 저녁식사

■ 사순시기 rice bowl

- 성당입구에 rice bowl이 있습니다.

- 부활절(3월 31일)에 봉헌해주시면 됩니다.

■ 성시간 - 3월 7일(목)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 3월 9일(토) : 만나 요아킴회

■ 예비신자 교리시작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 3월 성경 통독

- 3월 바오로 서간(읽기분량 : 코린토 전: 1.1-3,23)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회의 : 3/3(일) 교중미사후 교육관 106호

- 사목회의 : 3/3(일) 1:30 교육관 106호

- 성 모 회 : 3/3(일) 교중미사 후 교육관 107호

- 새리아드로 : 3/10(일) 오후 12:40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타 : 3/17(일) 오후 12:40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 3/17(일) 오후 12:40 교육관 106호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 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이안 Franks,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올리엠타, 정화봉 로사,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임희숙 세트리다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식탁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밥나눔 안내

- 오늘은 첫째 주 관계로 밥나눔이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오일사칠)

■ 2024년 4월 황금빛인생여행

- 날 짜 : 4월 15일(월)-19일(금) 사이에 떠날 예정입니다.

- 장 소 : 빅베이슨, 보데가베이, 사무엘 공원

- 사목회부회장 유다윗, 총무 지시문, 황금빛인생위원 이아네스

(1) 빅베이슨(15일,월)	2시간 여행, 산림욕, 한국식당
(2)보데가베이(17일, 수)	2시간 여행, 굴파티
(3)사무엘 공원(19일, 금)	1시간30분, 바베큐

* (1)~(3) 중에 본인의 건강과 취향을 고려해서 한가지만 신청

* 신청서 작성시에 교회책임면제 양식에 서명

* 신청마감일 : 3월 31일(일)까지입니다.

* 버스와 식당 예약 관계로 신청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혼인성사

-신랑: 이궁(요셉) 신부: 추민승(로사)

-일시: 3월 31일, 오전 11시

■ 아치에스 행사

- 일시: 3월 10일(일), 밥나눔 후 성당

■ 안나요아킴 2월 라인댄스 일정

- 셋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밥나눔 이후.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경 전체 필사 노트 전시 - 정순자 에디나 자매님

■ 이스라엘 성지 순례 환불 안내

- 오늘 신세계여행사에서 환불은 항공권과 지상권으로 나누고 이번에는 항공권만 환불해드립니다 (친교실)

■ 3월 10일 주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 3월 10일(일) 해외원조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3월 매일미사책 값은 성주간이 포함된 관계로 10불입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이번주 교중미사 성가 준비해주준 어울림팀에 감사드립니다.

- 어제 게파티 준비해주신 사목회, 성모회, 대건회에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구네군다 (3/3) : 지춘분 * 가시미로 (3/4) : 김영민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성 요셉-성인의 생애와 신심(1)

마리아의 배필이자 구세주 예수를 기르신 양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놓고 그 계획에 협력하셨으며 말없이 온몸으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신 분,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한국교회 주보 성인이신 성 요셉.

조용하고 신중하며 겸손한 그의 인상처럼 성경에서도 요셉 성인은 '예수의 아버지'(마태 13, 55 루카 3, 23 요한 1, 45)로 묘사되는 것 외에 마태오, 루카 복음 1~2장에서만 잠깐 언급돼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안에 기억되고 있는 성인 역시 성경안에서 처럼 침묵 속에 겸손하게 묻혀 계신 듯하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더불어 하느님 아버지로서 그 지고의 직무를 나누도록 선택 받은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 마리아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느님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명하고 존중을 표했던, 하느님 뜻을 따르는 동반자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이다.

성요셉 성월을 맞아 성인의 생애부터 복음서에 드러난 모습, 신심 등 그 면면을 짚어보고 다시 한 번 그의 특별함에 눈길을 두어본다.

다윗의 가문 요셉

'요셉(Joseph)'은 히브리어의 '더하다'에서 나온 것으로 '하느님께서 후손을 더하시기를'이란 뜻이다. 당대에는 무척이나 흔했던 이름으로 알려지는데, 구약의 요셉 이름을 따서 이름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음서에서도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만이 요셉에 대해 언급할 뿐이고 마르코, 요한 복음서에는 요셉과 연관된 내용이 거의 없다. 마태오, 루카 복음서에서도 요셉은 예수의 탄생기, 성장기에만 나타날 뿐이다. 그만큼 요셉의 생애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가 마태오 복음서에서는 '야곱'이라 제시되고 루카 복음서에서는 '엘리'라 밝혀져 있는데 이런 불일치에도 요셉이 '다윗의 가문'(마태 1, 1 루카 1, 27)이란 내용에서는 같은 의견이 드러난다.

출생지나 생애에 대한 기록도 복음서마다 다르게 진술돼 있어 진위를 가리기는 쉽지 않지만, 예수를 '목수의 아들'(마르 6, 3 마태 13, 55)로 지칭한 부분들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또 루카 복음서를 참고할 때 요셉이 호적 등록을 위해 나자렛 고을을 떠나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음(루카 2, 4)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베들레헴에 출생지나 연고지를 두고 오랫동안 나자렛에서 생활해 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예수님 시대 유다 랍비들은 남자들에게 13~19세 사이에 결혼할 것을 가르쳤다 한다. '의로운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지칭되던 요셉은 그러한 랍비들의 말을 잘 따랐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요셉의 활동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요셉은 50세 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낳고 있다.

그러나 '야고보의 원복음서' '토마스 복음서' 등 위경에서는 요셉을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 이미 나이가 지긋한 노인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이유로 예수의 공생활 이전 숨졌을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복음서의 요셉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할애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드러난 요셉은 '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심성' '경건한 성품' '깊은 신심'의 소유자로 비춰지고 있다.

마태오 복음 1장 19절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의롭다'는 요셉의 평판은 그가 법을 어기지 않고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한 삶의 방증이라 볼 수 있다. 정혼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스캔들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남몰래 파혼하기로 했다'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서도 마리아가 공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인의 '친절하고 자비로운 심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을 떨쳐 버림으로써 마리아를 데려 오고 아기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난 나선 장면에서는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성품'이 드러난다. 그의 굳은 신심은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결례는 남자 아이를 출산한지 40일 후, 여자 아이를 출산한지 80일 후 출산한 여자만이 치르는 것이었고 만이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도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결례를 마친 것은 매우 깊은 신심을 지니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결정이다.

(계속)

[가톨릭신문 2011-03-06]

